

논문 4

진로선택에서의 지원자에 따른 유형 구분 및 특성 비교

임 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학과 선택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을 기준으로 진로선택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 차이를 비교하는 데 있었다. 교육고용패널 2차 자료를 기초로 진로선택의 유형을 학교형, 가정형, 학원형, 의존형, 독립형으로 구분하였으며, 1차 조사 자료를 기초로 고등학교 3학년의 가정 및 학교 생활을 비교하였다. 독립형은 학원형에 비교하여 가정의 소득, 부의 교육,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교사와의 관계, 수능점수가 일관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대학생활에 있어서도 독립형이 학원형에 비하여 대학만족도, 학과만족도가 낮으며, 수업 태도가 좋지 않은 편이며, 상대적으로 직업결정을 한 학생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기초하여 독립형은 스스로 자율적이기를 선택한 집단이기 보다는 사회적 지지가 결여된 취약 집단으로서 정책적 차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개인의 진로개발은 평생에 걸친 과제이다. 생의 모든 단계에서 저마다의 진로개발의 요구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적절히 지원하는 체제를 국가적으로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으나, 청년기는 개인적인 삶과 국가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시기의 진로선택과 준비가 다른 어느 시기 보다 중요하다. 이 시기는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한 준비를 하는 시기이며, 인생에서 가장 활발하게 학습이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학습과 의욕이 최고조에 달한 청년기의 장기적인 미취업 상태는 그 시기까지 축적한 스킬을 적절하게 활용할 기회를 갖지 못함으로써, 스킬의 발달이 지연되거나 소실될 가능성조차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문제이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고교 졸업생의 82.1%¹⁾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다수의 청년들에게 사실상의 심각한 최초의 진로선택은 대학 진학에서의 전공과 대학 선택의 문제이다. 학벌의 영향력이 온존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성적이 중심이 되는 진로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학 진학과 관련된 선택은 온갖 경우의 수에 대한 고려와, 미래의 희망, 삶에 대한 가치관이 교차되어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복합적인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주체는 다양한 인지적 능력을 동원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이 가진 정서적 특성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특유의 진로선택을 하는 것이라 본다. 의사결정자의 개인적 특성 차이와 의사결정 상황에서의 맥락적 차이가 결정의 과정과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Harren, 1979).

대학진학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선택에 있어서 대부분의 고교생은 온전히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며, 따라서 대학 진학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모, 교사, 또는 친구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누군가로부터 충분한 정보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진로선택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있는가하면, 전혀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청소년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특징적으로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가, 또는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정윤경(2005)에 의하면, 청소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44%)이며, 학교선생님(10.4%),과 친구(10.0%)의 순서이며, 학원선생님의 경우도 3.3%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렇듯 부모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가정에서의 진로지도가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보다 학생들의 진로성숙에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임언, 2005). 그러나 가정에서의 진로지도의 영향력이 그와 같이 막강하다는 것은 가정의 환경이 열악하며, 충분한 정보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진로선택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가 없는 청소년의 경우, 이미 학습과정에서 받은 환경상의 불이익에 더하여 진로선택의 과정에서도 누적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의 대학입학 전형 원칙이 매우 복잡성을 띄며, 공개적으로 제시되는 정보가 매우 제한되어 학교 교사의 대학 진학을 위한 진로조언 역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더욱 큰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진로선택에 있어서의 정보격차 심화로 인하여 불이익이 가중되는 위험이 있다.

이과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전공 선택이라는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진로선택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검토하는 데 있다.

1) 일반계 88.3%, 실업계 67.6%(2005년도 졸업자 기준)

II. 선행 연구 검토

1. 진로선택에 영향을 주는 사람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현림(1999)은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직업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개인적 요인으로 적성, 흥미, 연령, 가치관, 학력, 신체적조건, 진로관, 성별, 지능을 들고 있으며, 환경적 요인으로는 자녀에 대한 기대, 가정의 전통과 종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가치관, 직업관, 문화매체, 사회적 환경, 학교요인, 친구 및 선배 등 타인과의 사회심리적 요인을 제시하였다. 직업적 요인으로는 직업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직장 환경, 근무 조건, 직업만족도, 사회적 공헌도, 발전 가능성 등을 제시하였다. 동 연구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일반계, 상업계, 공업계,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진로문제의 의논 대상은 부모가 41.8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친구(34.31%), 이며 교사는 3.64%에 불과하였다. 이같은 결과는 일반계와 실업계를 함께 조사한 결과와 다소 다르며, 이 조사에 참여한 고등학생 전체 714명 중에서 74.5%가 실업계 고등학생이라는 점에서 표본이 고등학생 전체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윤경(2005)은 직능원 교육고용패널 1차 조사 자료를 기초로 진로와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어머니(24.8%)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아버지(19.2%), 학교 선생님(9.04%), 친구(10.0%), 형제(4.9%), 학원선생님(3.2%), 친척(2.1%), 역사적 또는 현존하는 훌륭한 인물(2.1%), 선배(1.7%), 종교인(0.5%)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없는 학생의 비율은 21.3%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의 진로성숙도를 비교한 결과, 가장 높은 집단은 종교인의 영향을 받는 학생(3.77)이며, 그 다음이 역사적 또는 현존하는 훌륭한 인물(3.70)의 영향을 받는 학생이었고, 상대적으로 진로성숙도가 낮은 학생은 친구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 학생들(3.21)이며, 영향을 받는 사람이 없다고 한 학생들(3.35)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진로성숙도를 보였다.

진로문제에 있어서 가까운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연구로서 사회적 지지와 애착이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김성남과 정철영(2005)은 다양한 진로 의사결정 행동을 촉진시키거나 방해하는 맥락적 요인으로서 사회적 지지에 주목하고, 그것이 진로탐색과 의미있는 관계가 있음을 전문대생을 대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이현주(2001)도 부모와의 애착과 친구 및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진로탐색 활동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조금은 다른 연구로서, 이경희와 권준모(1996)는 진로선택에서 작동한 자율성이 향후의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였다. 자율성의 문제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어떻게 인지하고 해석하는가로 측정된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보고자하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에 대한 논의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경희와 권준모(1996)는 대학생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와 적응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으로서 대학 입학 당시의 전공 선택 과정에서 학생의 자

율성이 발휘되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그러한 가설을 지지하였다. 즉, 대학 전공 선택에서의 자율성이 높았다고 인식한 학생일수록 전공만족도, 흥미, 적성과의 부합 등 전공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자신의 전공이 장래성이 있다고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연구의 한계는 대학 전공 선택 시 자율성의 정도를 4년 전을 회상하여 평정한 점에 있다.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에 따르면, 인간은 좋은 결과는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고, 좋지 않은 결과는 남에게 원인을 돌리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일수록 전공선택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공 선택의 자율성과 전공에 대한 만족도간의 상관은 그것이 실제적인 관계 때문이 아니라 전공에 대한 높은 만족감이 생산한 인지적 부산물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자들을 밝히고 있다.

2. 진로의사결정의 유형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진로선택 유형 분류는 기존의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대한 논의에 맞닿아 있지 않으며, 다분히 한국적 현실에서 현상 중심으로 분류를 시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대한 논의를 간략히 개관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진로의사결정의 유형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김성남과 정철영(2005)이 체계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의사결정 유형을 최초로 분류한 Dinklage(1968)는 진로의사결정유형을 계획형, 고민형, 지연형, 무기력형, 충동형, 직관형, 숙명적 유형, 동조형으로 구분하고 계획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Arroba(1977)는 진로의사결정유형을 감정형, 주저형, 직관형, 무사유형, 동조형, 논리형으로 구분하고 개인의 의사결정 유형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Johnson(1978)은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내적-임의적 유형, 내적-체계적 유형, 외적-임의적 유형, 외적-체계적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또한 Krumboltz 외(1979)는 합리적 유형, 충동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 숙명적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류와 함께 Harren(1979)의 합리적, 직관적, 의존적 유형을 소개하면서 가장 포괄적이며 영향력 있는 모델로 소개하였다.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다양한 진로관련 특성들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는 많으나, 최근의 연구로서, 이재창 외(2005)는 고등학생 228명을 대상으로 낙관성과 우유부단이 Harren이 분류한 진로의사결정유형과 갖는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낙관성과 합리적 의사결정이 정적인 상관, 우유부단함은 의존적 유형과 진로미결정과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표집 수의 제약과 의사결정 유형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을 포함하지 못함으로써, 이 연구에 기초하여 인과관계의 방향을 논하거나, 일반화를 하는 데는 제약이 있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04년, 2005년에 실시한 한국고용패널조사의 1, 2차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2005년도에 대학에 진학한 학생 2455명의 응답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그들이 고등학교 3학년인 2004년도 패널 조사에서 응답한 내용과 가구조사 결과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이 중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1064명과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1390명의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2004년도 패널 응답자중 대학에 진학한 2,455명 중 44.3%인 1,087명이 전문대학에, 55.7%인 1368명이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진로선택 유형 구분

본 연구에서는 제 2차년도 조사에서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학과(전공, 계열, 학부)를 선택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준 두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에 따라서 진로 선택 유형을 가정형, 학교형, 학원형, 독립형, 의존형으로 구분하였다. “가정형”은 1순위와 2순위에서 부모님, 또는 본인이라고 응답한 경우이며, “학교형”은 1순위와 2순위에서 학교 선생님 또는 본인이라고 응답한 경우, “학원형”은 학원선생님과 본인의 의견을 중요시한 경우이며, “의존형”은 본인은 포함되지 않고 1순위와 2순위 모두 학교선생님, 부모님, 또는 학원선생님이라고 응답한 경우이며, “독립형”은 1순위와 2순위에서 본인과 선배 또는 친구를 선택한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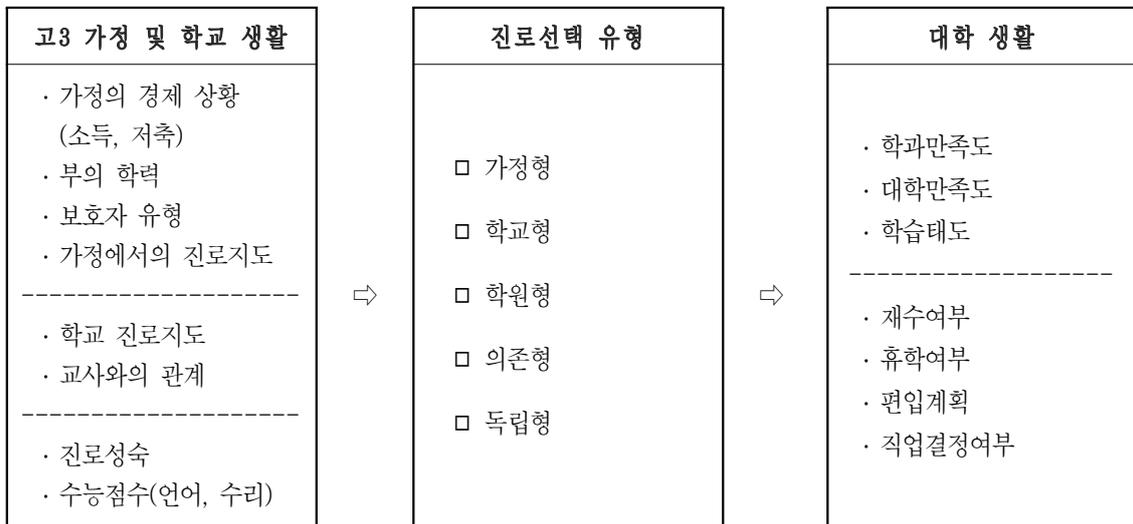
<표 1> 영향을 준 사람을 기준으로 한 대학 전공 선택 유형 분류

	1순위와 2순위 조합 방식	
가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부모님 · 부모님- 본인 	
학교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학교선생님 · 선생님- 본인 	
학원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학원선생님 · 학원선생님 - 본인 	
의존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 - 선생님 · 부모님- 학원선생님 · 학원선생님- 학교선생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 - 부모님 · 학원선생님-부모님 · 학교선생님- 학원 선생님
독립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친구 · 친구-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선배 · 선배-본인

3. 유형별 차이 분석 모델

진로선택 유형에 따라서 이들의 고등학교 3학년 때의 가정 및 학교 생활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대학생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가정 변인으로는 가정의 소득과 저축, 부의 학력²⁾, 부모의 직업유무, 보호자 유형, 가정에서의 진로지도³⁾를 포함하였다. 학교 변인으로는 학교에서의 진로지도를 받은 경험의 수⁴⁾,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교사가 있는지 여부⁵⁾, 진로성숙⁶⁾, 수능 언어와 수리 표준점수를 포함하였다. 진로성숙은 자기이해 및 긍정적 자아개념을 포함하는 6개 문항의 응답 결과로 측정하였으며, 신뢰도는 .76이다.

대학 생활에서의 차이는 학과만족도, 대학만족도, 학습태도⁷⁾, 재수여부, 휴학여부, 편입계획, 직업결정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림 1] 진로선택 유형별 차이 분석 모델

2) 교육고용패널 1차 조사에서 보호자의 특성에 대하여 매우 상세한 질문을 하고 있으나, 응답자의 특성에 대한 상세한 질문이 빠져있어서 응답자가 어머니인 경우 그들의 학력이 제시되지 않아 모의 학력에 대한 정보가 결측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의 학력만을 포함하고, 모의 학력은 포함하지 않았다.

3) 어떻게 살지에 대한 대화 경험, 적성과 흥미에 대한 대화 경험, 진로선택에 대한 대화 경험, 진로정보 찾기에 대한 대화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 합산

4) 진로관련 강연 경험, 학교 및 학과 안내 경험, 검사 경험, 직업체험 경험, 진로상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합산 점수를 사용하였다.

5) 존경하는 선생님 유무, 적성과 진로에 관심 갖는 선생님 유무, 좋아하는 선생님 유무, 이해해 주는 선생님 유무에 응답한 점수를 합하여 계산하였다.

6) 내가 무엇을 잘 하는 알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알고 있다, 내 삶에서 무엇이 중한지를 알고 있다, 내가 결정해야할 일을 무리 없이 결정한다, 내가 계획한 것을 잘 할 수 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데 대한 5점 척도 합산 점수

7) 출석, 복습, 예습, 과제, 강의 중 집중에 관한 5개 문항에 대한 합산 점수이다.

IV. 분석 결과

1. 고등학교 계열별 진로선택 유형 분포

학과선택 과정에서 본인 또는 부모님이 중심이 된 “가정형”의 경우, 전체의 53%로서 가장 많았다. 본인 또는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했다는 “학교형”은 23.5%, 본인 또는 학원선생님의 영향을 받았다는 “학원형”은 3.1%로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학교 선생님, 부모님, 또는 학원선생님의 영향을 받되, 본인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은 “의존형”은 8.7%이며 어른들의 조언이 없이 본인 또는 친구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했다는 “독립형”이 11.6%로 나타났다. 출신 고등학교 계열에 따른 분포를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반계 학생들에 비하여 독립형과 학교형이 많고 가정형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2〉 진로선택 유형 분포

구분		가정형	학교형	학원형	의존형	독립형	전체
실업계	빈도	426	224	21	83	133	887
	%	48.0	25.3	2.4	9.4	15.0	100.0
일반계	빈도	658	255	42	94	104	1153
	%	57.1	22.1	3.6	8.2	9.0	100.0
전 체	빈도	1084	479	63	177	237	2040
	%	53.1	23.5	3.1	8.7	11.6	100.0

$\chi^2=228.70, df=4, p=.000$

전문대학 재학 중인 학생과 4년제 대학생을 비교한 결과, 전문대 재학생이 4년제 대학생에 비하여 독립형의 비율이 높으며, 학교형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대학 유형별 진로선택 유형 분포

구분		가정형	학교형	학원형	의존형	독립형	전체
전문대	빈도	466	187	15	67	146	881
	%	52.9	21.2	1.7	7.6	16.6	100.0
4년제	빈도	593	285	47	110	90	1125
	%	52.7	25.3	4.2	9.8	8.0	100.0
전 체	빈도	1059	472	62	177	236	2006
	%	52.8	23.5	3.1	8.8	11.8	100.0

$\chi^2=48.84, df=4, p=.000$

2. 진로선택 유형별 고등학교에서의 가정 생활과 학교 생활 차이

진로선택 유형별로 고3 시기의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에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가. 가정생활

진로선택 유형별로 보호자의 유형을 분석 한 결과, 부모가 모두 계신 비율은 학원형(92.1%), 의존형(89.8%), 가정형(87.5%), 학교형(81.8%), 독립형(84.8%)의 순서로 나타났다.

1) 유형별 가정환경 차이

〈표 4〉 진로선택 유형별 보호자 유형

		부 모	편부, 편모, 친인척	전 체
가정형	빈도	948.0	136	1084
	%	87.5	12.5	100.0
학교형	빈도	392.0	87	479
	%	81.8	18.2	100.0
학원형	빈도	58.0	5	63
	%	92.1	7.9	100.0
의존형	빈도	159.0	18	177
	%	89.8	10.2	100.0
독립형	빈도	201.0	36	237
	%	84.8	15.2	100.0
전 체	빈도	1758.0	282	2040
	%	86.2	13.8	100.0

$$\chi^2=13.23, df=4, p=.010$$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학원형(334.3만원)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가정형(288.5%)이며 독립형(256만원)이 가장 낮았다. 사후 검정 결과 학원형과 독립형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가구 저축은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부의 학력은 학원형이 가장 높고 독립형이 가장 낮았다.

〈표 5〉 진로선택 유형별 가구소득, 가구저축, 부의 학력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검정 결과
가구소득	가정형	288.5	187.7	2.98 *	학원형-독립형
	학교형	277.1	176.1		
	학원형	334.3	182.4		
	의존형	285.4	160.4		
	독립형	256.0	148.3		
	합계	283.2	178.8		
가구저축	가정형	73.1	97.8	.81	
	학교형	67.5	87.2		
	학원형	78.2	62.7		
	의존형	69.9	75.5		
	독립형	63.4	76.3		
	합계	70.6	90.3		
부학력	가정형	5.0	1.3	6.57 ***	가정형-학교형 가정형-독립형 학원형-독립형 학원형-학교형
	학교형	4.8	1.2		
	학원형	5.1	1.3		
	의존형	5.0	1.5		
	독립형	4.6	1.1		
	합계	4.9	1.3		

주: 1) *: $p \leq 0.1$, **: $p \leq 0.05$, ***: $p \leq 0.01$

2) 부의 학력: 2-무학, 3-초졸, 4-중졸, 5-고졸, 6-전문대졸, 7-4년제졸, 8-석사, 9-박사

가정에서 이루어진 진로지도의 정도는 가정형과 학교형이 가장 높으며, 독립형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진로선택 유형별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정도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검정 결과
가정진로	가정형	3.2	1.0	4.22 **	가정형-독립형
	학교형	3.0	1.1		
	학원형	3.2	.9		
	의존형	3.1	1.1		
	독립형	2.8	1.1		
	합계	3.1	1.1		

나. 학교 생활

진로선택 유형별 고등학교 3학년 때의 학교 생활을 선생님과의 관계, 진로지도 경험과 만족도를 중심으로 비교한 결과 선생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응답한 것은 학원형이 2.4로서 가장 높고, 독립형(2.0)과 가정형(2.0)이 가장 낮았다.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경험과 만족도는 선택 유형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진로선택 유형별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차이

학교 생활 변인	유형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검정 결과 유의미한 집단 차이
선생님과의 관계	가정형	2.0	.9	5.51 ***	가정형-학교형 학교형-독립형 학원형-독립형
	학교형	2.2	.9		
	학원형	2.4	.8		
	의존형	2.2	.9		
	독립형	2.0	1.0		
	합계	2.1	.9		
진로지도 경험갯수	가정형	2.7	1.4	1.74	없음
	학교형	2.8	1.4		
	학원형	2.9	1.3		
	의존형	2.7	1.4		
	독립형	2.5	1.4		
	합계	2.7	1.4		
진로지도에 대한 만족총점	가정형	18.9	3.3	.82	없음
	학교형	18.4	3.2		
	학원형	23.0			
	의존형	20.3	1.5		
	독립형	20.7	4.1		
	합계	19.1	3.2		

주) *: $p \leq 0.1$, **: $p \leq 0.05$, ***: $p \leq 0.01$

진로성숙도면에서는 학원형이(18.1)이 가장 높았으며, 독립형(16.60)과 의존형(16.4)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수능 성적 또한 학원형(94.2)로 가장 높고 독립형(87.4)이 가장 낮았으나, 수능 수리 점수는 집단별로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8〉 진로선택 유형별 학생 특징 차이

학교 생활 변인	유형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검정 결과
학생의 진로성숙	가정형	17.0	3.0	5.73 ***	가정형-학원형 학원형-학교형 학원형-의존형 학원형-독립형
	학교형	17.1	2.8		
	학원형	18.1	2.6		
	의존형	16.4	2.9		
	독립형	16.6	2.7		
	합계	17.0	2.9		
수능 언어 표준점수	가정형	95.3	20.7	4.04 **	가정형-독립형
	학교형	93.3	21.6		
	학원형	94.2	18.4		
	의존형	90.9	20.6		
	독립형	87.4	21.1		
	합계	93.7	21.0		
수능 수리 표준점수	가정형	95.5	18.1	2.17	없음
	학교형	95.4	18.9		
	학원형	90.4	16.7		
	의존형	93.1	17.7		
	독립형	90.8	15.7		
	합계	94.7	18.1		

주) *: $p \leq 0.1$, **: $p \leq 0.05$, ***: $p \leq 0.01$

3. 대학재학 중 특징

가. 학과 선택 유형에 따른 대학 생활 차이

대학 입학 당시 학과 선택 유형에 따라서 대학 생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대학만족도, 학과 만족도, 학습태도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대학만족도는 가정형, 학교형, 학원형이 3.4로서 가장 높았으며, 독립형이 3.2로 가장 낮았다. 학과 만족도는 학원형이 3.8로서 가장 높고 가정형과 독립형, 의존형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만족도와 학과 만족도는 1개의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로서 통계적 유의도 비교를 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본다. 대학에서의 학업태도는 학원형이 16.8로 가장 높고 독립형과 의존형이 15.9로서 가장 낮았다.

〈표 9〉 진로선택 유형별 대학에서의 생활 차이

대학생활변인	유형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검정 결과
대학만족도	가정형	3.4	.8	2.73 *	독립형-학교형
	학교형	3.4	.8		
	학원형	3.4	.7		
	의존형	3.3	.8		
	독립형	3.2	.9		
	합계	3.4	.8		
학과만족도	가정형	3.5	.8	2.98 *	학교형-가정형 학원형-의존형
	학교형	3.6	.7		
	학원형	3.8	.8		
	의존형	3.5	.8		
	독립형	3.5	.8		
	합계	3.5	.8		
수강태도	가정형	16.5	3.1	3.19 *	학원형-독립형
	학교형	16.3	3.0		
	학원형	16.8	2.5		
	의존형	15.9	3.0		
	독립형	15.9	3.3		
	합계	16.4	3.1		

주) *: $p \leq 0.1$, **: $p \leq 0.05$, ***: $p \leq 0.01$

나. 대학 재학 중의 진로 계획

대학에 진학한 후의 진로변경을 고려하고 있는가를 재수, 편입, 휴학을 중심으로 질문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진로선택 유형별로 재수를 생각하는 정도나 편입계획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휴학계획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독립형의 14.8%가 휴학계획이 있는 반면, 학원형은 단지 7.9%만이 휴학계획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10〉 진로선택 유형별 진로변경 비율

		재수계획			편입계획			휴학계획		
		있음	없음	전체	있음	없음	전체	있음	없음	전체
가정형	빈도	32	1052	1084	213	868	1081	110	974	1084
	%	3.0	97.0	100.0	19.7	80.3	100.0	10.1	89.9	100.0
학교형	빈도	5	474	479	96	381	477	70	409	479
	%	1.0	99.0	100.0	20.1	79.9	100.0	14.6	85.4	100.0
학원형	빈도	2	61	63	18	44	62	5	58	63
	%	3.2	96.8	100.0	29.0	71.0	100.0	7.9	92.1	100.0
독립형	빈도	4	233	237	59	178	237	35	202	237
	%	1.7	98.3	100.0	24.9	75.1	100.0	14.8	85.2	100.0
의존형	빈도	1	176	177	41	136	177	18	159	177
	%	.6	99.4	100.0	23.2	76.8	100.0	10.2	89.8	100.0
전 체	빈도	44	1996	2040	1607	427	2034	238	1802	2040
	%	2.2	97.8	100.0	79.0	21.0	100.0	11.7	88.3	100.0
		$\chi^2=8.74, df=4, p=.068$			$\chi^2=3.39, df=4, P=.12$			$\chi^2=9.01, df=4, p=.04$		

미래의 직업을 결정했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학원형이 결정비율(52.4%)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가정형(49%)이었으며, 독립형은(46.4%) 가장 낮았다.

〈표 11〉 진로선택 유형별 직업결정 여부

		미래 직업		전 체
		결정	미결정	
가정형	빈도	531	553	1084
	%	49.0	51.0	100.0
학교형	빈도	204	275	479
	%	42.6	57.4	100.0
학원형	빈도	33	30	63
	%	52.4	47.6	100.0
독립형	빈도	110	127	237
	%	46.4	53.6	100.0
의존형	빈도	69	108	177
	%	39.0	61.0	100.0
전 체	빈도	947	1093	2040
	%	46.4	53.6	100.0
		$\chi^2=10.53, df=4, p=.03$		

3. 학원형과 독립형을 구별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진로선택의 유형별로 가정 환경과 고3과 대학1학년 시기의 학교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특성을 비교한 결과 학과선택의 유형 중에서 학원형과 독립형이 가장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고등학교에서의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변인 중에서 동간성을 가정할 수 있는 변인들

을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 학원형과 독립형을 얼마나 잘 구분하는가를 알아보고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가구소득, 가정진로, 교사와의 관계, 진로성숙도가 두 집단을 구분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생활과 관련하여 별도의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학과만족도와 수강태도가 두 집단을 유의미하게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학원형과 독립형을 구분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 1(고교 재학 중 특징)		모형 2(대학 1학년 중 특징)	
	B	S.E.	B	S.E.
가구소득	-.002 **	.001		
부학력	-.250 *	.132		
가정진로	-.092	.150		
경험갯수	-.153	.114		
사제관	-.399 **	.192		
진로성숙	-.143 **	.064		
대학만족도			.005	.201
학과만족도			-.414 *	.226
수강태도			-.091 *	.051
직업결정여부			.046	.298
	-2 Log 우도=261.322 R2=.175 N=278		-2 Log 우도=296.648 R2=.057 N=299	

주) *: p≤0.1, **: p≤0.05, ***: p≤0.01
 종속변인: 1=독립형, 0=학원형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대학의 학과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진로선택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 유형에 따라서 고등학교에서의 진로와 관련된 가정 및 학교 변인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하였으며, 대학 생활 만족도와 진로결정 상황을 비교하였다. 대학 학과를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친 사람에 따라서 가정형, 학교형, 학원형, 의존형, 독립형으로 구분한 결과, 본인과 부모의 의견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가정형이 53%로 가장 많았으며 선생님과 본인의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한 경우는 23.5%로서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종전의 연구 결과들에 비하여 학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평가된 것으로서, 영향을 준 1순위와 2순위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교사의 영향력이 10% 이하이었음을 감안할 때, 2순위를 함께 고려하면 학교 선생님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여전히 진로 선택과 관련하여 학교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진로선택 유형별로 고3 시기의 가정 환경을 검토한 결과 독립형은 가구소득, 부의 학력 면에서 일관되게 낮았으며, 이와 가장 대조적인 유형은 학원형으로서 대부분의 특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또한 독립형이 가장 낮으며, 가정형과 학원형이 가장 높았다.

진로선택 유형별로 고3 시절의 학교 생활을 비교한 결과, 선생님과 관계가 가장 낮은 것이 독립형이며, 가장 좋은 집단은 학원형이었다. 또한 학교형이 가정형 보다는 좋은 사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서 학교 교사와의 관계가 좋은 학생일 경우, 부모님보다 교사의 조언을 들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진로성숙도와 수능 언어 점수에 있어서도 독립형은 가장 낮았으며, 학원형이 가장 높았다. 수능 수리 점수는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진로선택의 유형별로 대학 1학년 생활을 비교한 결과, 대학에 대한 만족도와 학과 만족도도 역시 독립형이 가장 낮았으며, 학원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에서의 학업과 관련하여 독립형이 수업태도 면에서 낮은 평균 점수를 보였으며, 학원형이 긍정적인 학업수행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본 연구에서 구분한 진로선택의 다섯 가지 유형(가정형, 학교형, 학원형, 의존형, 독립형)중에서 가장 좋은 특성들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유형은 학원형임을 확인하였다. 그 비율은 3.1%로 매우 낮으나, 사교육의 영향력이 단순히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데 한정되지 않고, 진로선택 과정에서도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집단이 가정환경이나 학교에서의 적응에 있어서 우월한 입장에 있는 학생들이라는 점이다. 이는 교육에서 있어서의 최상의 서비스가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씁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학원형의 일관된 우월성과 대비되는 것으로 본인이나 친구, 또는 선배의 의견에 따라서 진로를 선택한 독립형이 본 연구에서 검토한 모든 측면에서 가장 부정적인 프로파일을 가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의 11.6%에 해당되는 이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환경의 학생들로서 학교에서 특별하게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교사가 없으며, 아울러 낮은 진로성숙도와 수능점수를 가진 집단으로서 대학에서의 적응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프로파일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할 때, 본 연구에서 정의한 “독립형”이 부모와 선생님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이 독립적이기를 선택하였기 보다는 그 누구로부터도 좋은 조언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 혼자서 결정할 수 밖에 없는 학생들임을 알 수 있었다. 최근의 대학입학 전형 원칙이 매우 복잡성을 띄며, 공개적으로 제시되는 정보가 매우 제한되어 학교 교사의 대학 진학을 위한 진로조언 역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더욱 큰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진로선택에 있어서의 정보격차 심화로 인하여 진로선택에서의 불이익이 가중되는 위험이 있다. 그 누구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독립적인 면모를 보이는 학생들이 사실은 교육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이경희·권준모(1996)가 대학 전공 선택과정에서의 자율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대학 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결과와 불일치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짐작할 수 있다. 첫째, 이경희·권준모(1996)의 연구에서 자율성은 대학교 4학년 시점에서 회상적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긍정적인 결과를 자신으로 귀속시키는 경향에 의하여 대학생들이 만족스러운 학생일수록, 그 선택이 자신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율성을 측정하는 방식에서 본 연구에서와 같이 단순히 영향 준 사람에 대하여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압력이 있었는가 여부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도 이와 같은 차이가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진로선택 유형이 독립형으로 구분된 학생들에 있어서 이들의 독립적 행동은 본인이 선택한 것이기보다는 학교와 사회가 이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가정환경이 열악하여 부모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써 진로선택에서 중복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을 위한 진로조언 서비스가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학교 진로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을 시사하며, 특별히 가정에서 이와 같은 진로와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취약한 환경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양질의 진로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지원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분명하게 시사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성남·정철영(2005). 「전문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의사결정 유형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7(2), 139-159.
- 박미진·최인화·이재창(2001).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25-146.
- 이경화·권준모(1996). 「대학생의 전공 선택 자율성과 대학생활」.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제12권』, 95-112.
- 이재창·박미진·김수리(2005). 「청소년의 낙관성과 우유부단이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33-650.
- 이현림·남혜경(1999). 「고등학생의 진로선택에 관한 요인분석」. 한국진로상담학회, 4(1), 53-82.
- 이현주(2001).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진로탐색활동의 인과관계 연구」. 교육심리연구, 15(3), 257-280.
- 정윤경(2005).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관련 변인: 가정, 개인 학교 특성을 중심으로」.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259-302.
- 임언(2005). 「다층모형(HLM)에 기초한 학교 진로교육 효과 분석」.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639-659.
- Arroba, T.(1977). Styles of decision-making and their use: An empirical study.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ing*, 5, 149-158.
- Dinklage, L. B.(1968). *Decision strategies of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Harren, V. A.(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119-133.
- Mitchell, Anita M., Jones, G. Brian., Krumboltz, John D.(1979). *Social learning and career decision making*. Cranston, R.I.: Carroll Press.

Abstract

Classification of the types of career choice of the youth using the influential persons as criterion

Eon Lim (KRIVET research fellow)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ssify the types of decision making in the process of choosing college majors and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types in terms of family background and school lives of high school senior and college freshmen. Five types were found based on the person who made the most and the second most important effects on their college major choice: "family", "school", "private institute", "dependent", and "independent". Independent type showed consistently adverse profile in most variables, while "private institute type" showed very favorable profile of family background,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achievement, career maturity, satisfaction with college major, study attitude in college, and career decis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issue of inequity in career guidance was raised.

토 론 문

『진로선택에서의 지원자에 따른 유형 구분 및 특성 비교』에 대한 토론

윤 여 각*

I

진로선택은 하나의 삶을 매듭짓고 다른 삶으로 나아가는 분기점에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당사자에게 중대한 것이다. 특히 대학선택은 사회적 이력으로서 대학경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느 누구도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연구자는 대학으로의 진로선택에 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고, 이를 자료로 하여 진로의사결정 또는 진로선택의 유형을 구분하고, 이를 진로자의 유형 구분으로 하여 유형별로 가정 및 고등학교 생활과 대학생활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진로선택에서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고(53%), 학원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학원형”과 친구나 선배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독립형”이 몇 가지 특성에서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자는 긍정적인 특성을, 후자는 부정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연구자는 후자에 대한 지원체제 마련에 대한 시사를 도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진로선택을 둘러싼 계층 간 격차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고, 이를 줄이기 위한 그 동안의 정책적 노력이 미흡했음을 보여 준 연구라고 할 수 있다.

II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부연하고자 한다. 하나는 용어의 적절성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질적 연구를 선호하는 토론자의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며, 마지막 하나는 정책에 관한 것이다.

첫째, 진로선택 유형을 구분하는 용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정형, 학교형, 학원형과 의존형, 독립형을 병렬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범주 착오를 범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진로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으로 1순위나 2순위로 지적인 사람이 부모님인 경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과 교수

“가정형”으로, 학교 선생님인 경우 “학교형”으로, 학원 선생님인 경우 “학원형”으로,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인 경우 “의존형”으로, 친구나 선배인 경우 “독립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존형에서는 자신의 의사보다는 타인의 의사에 의존한다는 점이 부각되고, 독립형에서는 그 반대로 타인의 의사보다는 자신의 의사를 밀고나간다는 점이 부각된다. 그러므로 1순위로 본인을 언급한 학생은 독립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타인을 언급한 학생은 의존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2순위로 언급하는 사람을 도외시하지 않고 범주화하기 위해서는 독립형과 의존형을 세분화시키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즉, 1순위는 본인이지만 2순위가 부모님이라면 “독립-가정형”으로, 1순위가 부모님이고 2순위가 본인이라면 “의존-가정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순위가 본인이지만 2순위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독립-학교형”으로, 1순위가 학교 선생님이고 2순위가 본인이라면 “의존-학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것은 학원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순위가 부모님이고 2순위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의존-가정-학교형”으로, 1순위가 학교 선생님이고 2순위가 학원 선생님이라면 “의존-학교-학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형”을 새롭게 설정하고 1순위가 본인이지만 2순위가 친구나 선배인 경우에는 “독립-사회형”으로, 1순위가 친구나 선배이고 2순위가 본인인 경우에는 “의존-사회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진로선택의 대범주를 설정하고,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는 장소를 부각시키는 하위범주를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다.

둘째, 진로선택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서 부모님, 학교 선생님, 친구나 선배, 학원 선생님의 순으로 그 비중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해석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진로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으로 부모님을 언급한 학생의 비율이 53.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학교 선생님이 23.5%이며, 학원 선생님은 가장 적은 3.1%이다. 이 수치가 진로선택에서 부모님이 가장 중요하고, 학원 선생님이 가장 덜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 연구에서 드러내지 못한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심리적으로 완전히 벗어나 있거나 가정에서 어느 누구도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조언을 해줄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부모님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진로선택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재학생이라면 학교 선생님의 의견을 도외시하기 어렵고, 재수생이라면 학원 선생님의 의견을 도외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와 정보 부족으로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재학생으로서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선생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에 대해 부모님에게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진로선택에서 학원 선생님의 영향력은 언제나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에게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절대적인 신뢰가 있고, 재학생이 아닌 재수생의 경우에 학원 선생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역학 관계를 고려해야 통계 수치에 대한 진전된 해석을 할 수 있다.

셋째, 진로선택에 누가 영향을 미치는가 못지않게 진로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로선택에서는 우선 학생의 적성이나 소질을 포함하는 역량을 확인하고, 이에 적합한 가능한 선택지들을 충분히 탐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역량을 무시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 아니다. 즉, 진로선택에 누가 영향을 주든 그 영향의 타당성 문제가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친구나 선배가 진로선택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조언이 타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역으로, 아무리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이 진로선택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의견개진이 타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연구가가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양질의 진로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지원체제를 갖추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진로선택은 어느 시점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전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든 관여하지 않고 진로선택 단계에서 정보만 제공하는 것으로 정책적인 책무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학업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를 최소화하는 복지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 토대 위에서 진로선택과 관련된 정책이 연동되어 개입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진로선택을 당사자의 문제로 돌리고 그 이후에 개입하지 않는 것도 정책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모든 진로선택이 항상 최선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타당하지 않은 진로선택을 하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까지 논의의 연장이 필요하다.

III

진로선택은 하나의 사건이다. 그러나 그 사건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일정한 맥락 속에 있는 사건이며, 전체적인 흐름 속에 있는 사건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처럼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여기서는 인적 맥락)을 살펴보고, 진로선택과 그 이전 이후의 관계를 검토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보여준 것처럼, 진로선택에서 적절한 도움을 못 받는 학생은 이후에도 계속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벗어나는 체제의 문제이다. 건강한 체제는 이러한 개인의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그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체제일 것이다. 달리 말하면, 안전망이 작동하는 체제가 건강한 체제이다.